



# 2018년 정기총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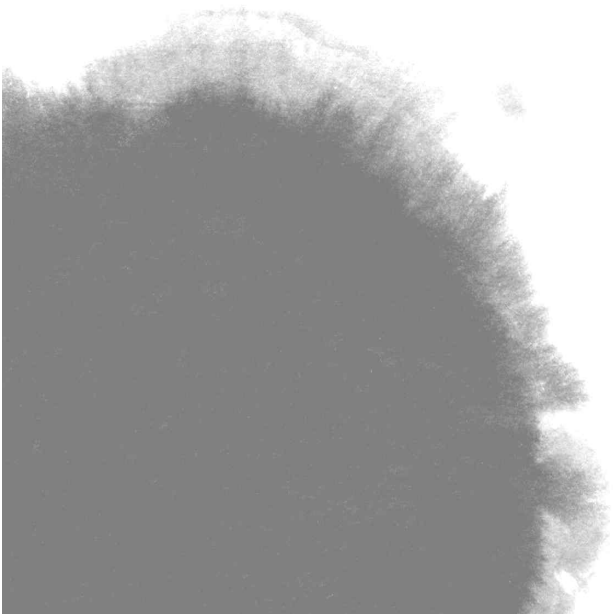
일 시 : 2018.01.25.(목) 19:00

장 소 : 서산풀뿌리시민연대 강당



# 차례

■ 일정표 및 식순 .....	4
■ 대표인사 .....	5
■ 보고 안건 .....	7
1. 회원 현황 .....	8
2. 서산풀뿌리시민연대 2017년 결산보고 .....	8
3. 2017년 실시 사업 보고 .....	9
4. 총평 .....	16
5. 감사 보고 .....	19
■ 심의 안건 .....	20
심의안건 1. 임원 선출의 건 .....	21
심의안건 2. 2018년 사업계획(안) 승인의 건 .....	22
심의안건 4. 2018년 예산(안) 승인의 건 .....	25
■ 기타 안건 .....	27
■ 서산풀뿌리시민연대 정관 .....	29



# 일정표 및 식순

	시 간	내 용	
	19:00~19: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부 사전마당</li> <li>- 접수</li> <li>- 사회 : 김정미</li> </ul>	
	19:10~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부 정기총회</li> <li>- 대표 인사</li> <li>- 성원확인</li> <li>- 서기임명</li> <li>- 개회선언</li> <li>- 보고안건</li> <li>- 논의안건</li> <li>- 폐회선언</li> </ul>	
	20:10~2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부 회원의 밤</li> <li>- 사회 : 조영미</li> </ul>	

# 대표인사

<영화 1987>을 스물아홉 살 딸과 함께 관람을 했습니다.30년 전에 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지나온 엄청난 일인데 내 딸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 영화를 보았을까 궁금해졌습니다. 딸아이는 ‘영화가 참 잘 만들어졌다.’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되고 감동이다.’ ‘끝부분에서는 눈물이 나더라.’ ‘이젠 달라져서 저런 짓 못하죠.’라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볼 수 있겠구나.다행이야.’

흐르는 눈물을 닦으면서도 왜 이런 생각을 해야 하는지.....

잔인한 고문과 폭력을 휘두르면서도 애국자가 나라를 위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며 당당해 하던 미친 인간들은 지금도 반성과 후회는커녕 억울해 하며 정권이 바뀐 탓을 합니다. 당시에 힘들게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의 가족 중에는 “그런다고 세상이 달라지냐?” “왜 너만 그렇게 애쓰고 우리 가족만 힘들게 사냐?”며 분노를 삭입니다.

작년 이 자리에서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는 바램을 인사말 끝부분에 했는데 추운 겨울 광화문에서 “박근혜 퇴진”을 목청 높여 외치면서도 진짜 이루어질까? 불안했지만 신기하게도 바램이 이루어졌고 새 정권이 탄생하였습니다.

‘아! 시민운동은 이런거구나. 함께 하면 세상을 바꿀 수가 있구나!’

촛불혁명으로 만들어진 정권이라고는 하지만 엄청난 적폐를 청산하기에는 역부족인 듯 아쉬움이 많습니다. 특히 노동, 교육, 사법, 환경 분야에서는 엉금엉금 기어갑니다.

서산의 산폐장 백지화는 시민단체의 몫인가 봅니다.

매주 더위와 추위를 무릎 쓰고 산폐장 반대 걷기 행진, 촛불 집회에 동참하시는 진정한 서산 환경 지킴이단 여러분, 존경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서산시정을 감시하고 참여하여 깨끗하고 맑은 서산을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주는 일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풀뿌리 시민 연대 활동을 하시는 많은 분들은 늘 ‘우리의 꿈이 이루어질까?’라는 기약 없는 결말을 걱정하면서도 내가, 우리가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바뀌지 않음을 알기에 오늘도 마음과 행동을 모아 이 자리에 모여 서산의 희망을 만들어 갑니다.

끝까지 함께 해요. 우리!!

서산풀뿌리시민연대 대표 **김순제**



# 보/고/안/건

## 1. 회원 현황

- 서산풀뿌리시민연대의 2017년 정기 총회 당시 회원은 총 100명이었음.
- 2017년 한해 동안 회원 8명이 입회하여 현재 회원은 총 108명임. (2017.12.31. 기준)

## 2. 서산풀뿌리시민연대 2017년 결산보고

(‘17년 1월01일 ~ ’17년 12월31일)

수 입	전년도 이월		873,457
	회비		9,845,160
	후원금		324,000
	백지화연대티셔츠판매 등		1,190,000
	대추판매		300,000
	예금이자		1,644
합 계			12,534,261
지 출	운영비	통신요금	169,400
		전기료	187,240
		사무실임대료	2,665,000
		웹하드사용료	164,942
		수수료	771,810
		기타	564,140
	소 계		4,522,532
	연대사업비	분담금	2,092,500
		홍보광고료	245,000
	소 계		2,337,500
	회의비	회의	316,200
		총회	393,820
	소 계		710,020
	행사비	어린이날	329,450
		가래떡의 날	160,500
		홍보광고료	80,000
	소 계		569,950
	조직사업비	조직진단	797,400
		소모임지원	200,500
		기타	100,500
	소 계		1,098,400
	소식지		572,030
	소 계		572,030
합 계			9,810,432
잔 액			2,723,829



### 3. 2017년 실시 사업 보고

#### 1) 활동내용

월	활 동 내 용
1월	풀뿌리시민연대 정기총회 박근혜 퇴진을 위한 호수공원 촛불집회
2월	탈핵희망 국토도보 순례 참여 박근혜 퇴진을 위한 호수공원 촛불집회
3월	박근혜 탄핵 승리 기자회견 현대오일뱅크 코크스 공장관련 화곡리 주민 면담 및 관련 집회 참석 동부시장 수산물골목이 탁한 공기! 누가 책임질 것인가? 논평 서산톨게이트 지회 벌금마련 하루 주점 참여 세월호 3주기 서산시민사회단체 간담회 및 준비회의
4월	현대오일뱅크 코크스 공장관련 화곡리주민 집회 참석 세월호 참사 3주기 분향소 지킴이 세월호 참사 3주기 기억문화제
5월	제 95회 어린이날 큰잔치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해직교사 복직 촉구 기자회견 416 순례길
6월	충남 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 조직진단사업 <지역운동에 날개달기>step1 양대동 광역쓰레기 소각장 설명회
7월	풀뿌리시민연대 15호 소식지 발행 ‘시민의 소리에선 불통막장, 시의회에는 호통막말, 서산시는 각성하라’ 논평 조직진단사업 <지역운동에 날개달기>step2 ‘함께걷는 사람들’ 충남도인권조례지키기 피케팅 지곡산업폐기물매립장 반대 집회 ‘환경파괴시설 전면백지화를 요구하는 서산시민사회연대’ 출범기자회견 조직진단사업 <지역운동에 날개달기>step3 ‘지역운동, 그 미래는?’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초청강연

8월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완료 양대동쓰레기소각자 관련 주민공청회 참석 환경파괴중단! 청정서산만들기 위한 활동기금마련 일일주점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충남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 산업폐기물 매립장 공사강행 규탄 긴급기자회견
9월	산업폐기물 매립장 반대 1차 걷기 대행진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 홈페이지 제작지원사업 신청 서산맘카페 집회 참석 풀뿌리소잉클래스 첫모임 산업폐기물 매립장 반대 2차 걷기 대행진 산업폐기물 매립장 반대 촛불집회 및 3차 걷기 대행진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 홈페이지 지원사업 선정
10월	산업폐기물매립장 천막지킴이 서산시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서명운동 및 선전전 양대동 소각장 설치 반대 서명운동 및 선전전 조직진단사업 <지역운동에 날개달기> step4 회원초청간담회 산업폐기물매립장 반대 촛불문화제 및 걷기행진
11월	환경파괴시설 전면 백지화를 위한 서산총궐기 및 가래떡데이 지방분권 충남연대 간담회 참석 풀뿌리시민연대 16호 소식지 발행 백지화연대 ‘오토밸리 폐기물발생량 산정검토서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12월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 홈페이지 관리자 시연회 풀뿌리 후원 어린이 국악합창단 창단공연 회원 밥한끼 먹는날 진행 산폐장 반대 서산시민 걷기행진 참여 산폐장 문제해결, 목표와 방향 모색을 위한 서산시민 원탁회의 참여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설 ‘공사중단’이 우선이다.’ 논평

## 2) 성명 및 논평

### ■[논평] 동부시장 수산물 골목의 탁한 공기! 누가 책임 질 것인가?

겨울만 계속될 것 같더니 이젠 완연한 봄이다.  
곧 여름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온이 하루하루 높아질수록 서산 동부시장 상인들의 걱정은 무거워지고 있다.

그 이유인 즉,  
서산시는 몇 년 전 서산의 명소인 동부시장을 그 위상에 걸맞는 아치형 지붕을 덮어  
한층 세련되고 깔끔하게 단장 하였다.

그러나 얼마 후 부터 동부시장 내 수산물 골목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수산물 수족관냉각기의 실외기가 일제히 아치형 지붕밑에서 가동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외기 70~80대가 실내에서 일제히 뿜어내는 뜨거운 열과 탁한 공기가 환류되어 상인  
들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또한 그 공기로 인하여 건어물과 생선의 색을 변색시키고 오염시키는 등 수산물의 품  
질저하를 초래하기도 한다.

동부시장 상인들은 나름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붕의 뚜껑을 열어보기도 하  
고, 실외기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에 대한 고민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지난해에 상인회와 시민단체, 시의회와 서산시가 간담회를 가졌다.

그 결과 서산시의 담당자에게서 실외기를 지붕밖에 설치하는 것에 공사비 예산을 언제  
든지 마련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러나 모터 비용은 상인들 개인부담으로 하며, 이에 대하여 수족관을 운영하는 상인  
전원의 동의서를 시청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지난해 부터 시작된 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부터다.

수족관을 운영하는 상인들은 추가 모터비용이 부담스럽고, 실외기로 인한 피해는 오히

려 수족관이 없는 상인들보다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흔쾌히 그 조건을 받아들여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상인연합회에서는 이렇게 이해관계가 중첩되어 있는 상황에서 상인들을 설득해 내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시청에서는 나 몰라라하고,

차일피일 미루다 한 계절이 다 가고 걱정스러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 문제는 단순히 상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산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할 공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애초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충분한 지분을 설계한 서산시의 책임은 차지하더라도. .

현재 상인들과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또한 수산물 시장의 매출 저하와 나아가 서산시의 이미지가 저하될 수도 있다.

서산시는 무엇을 하는 기관인가?

상인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면 서산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설득하여 직접 받아내야 할 것이다.

서산풀뿌리시민연대에서는 지난해 서산시와의 간담회에서 실외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서산시의 의지는 확인 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는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서산 시민으로서 요구한다.

좀 더 적극적인 시정으로 동부수산시장의 실외기 문제로 인한 서산시민들의 불안을 조속히 하길 촉구한다.

2017. 3. 14

서산풀뿌리시민연대

## ■[논평]시민이 소리에 불통 막장, 시의회에는 호통 막말, 서산시는 각성하라!

서산시의 행정이 해가 갈수록 엉망이 되어가고 있다.

올해 들어 서산 곳곳에서 동시에 불거진 지역 환경문제가 그렇다.

양대동 광역생활폐기물 소각장 건설 문제, 대산 현대 오일뱅크 코크스 공장 증설 문제, SRF발전소 건립 문제, 성연 테크노밸리 내 산업폐기물매립장 문제, 운산 하수종말처리 시설 문제 등 서산 시내는 물론 대산, 지곡, 성연, 운산을 가릴 것 없이 시를 원망하고, 규탄하는 현수막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시청 홈페이지에는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시가 대처하는 행태는 고작 여론 몰타기에 , 현수막 불법 시비 뿐이다.

시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시민을 위한 "더불어 행복한"서산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집 불통 서산시를 시민이 모시고 따라야하는 모양새이다. 시민 위에 군림하는 서산시의 행태가 막장 드라마를 방불케 한다.

어제(7월 3일)는 시의원이 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기까지 했다.

내용인즉 ‘지난 6월 26일 정례회 폐회를 앞두고 시에서는 부시장과 국장을 동원해 시의회 의장을 찾아가 이연희 의원의 비정규직 센터 관련 5분 발언을 막아줄 것을 요구’ 하고, ‘5분 발언 후 집행부 한 국장이 5분 발언 할 것 없으면 하지 말든지 의원이면 의정생활 똑바로 하라’는 폭언을 했다는 것이다. 이연희 의원이 밝힌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 폭언을 한 국장도 서산시장도 아무런 사과나 후속조치가 없다’고 한다.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에게 더구나 의회 공식 절차이자 의원의 공적 발언에 대해 폭언과 막말이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설혹 발언에 잘못된 점이나 반대의견이 있다면 정식으로 의견을 제출하는것이 마땅하다.

최근 몇년사이 시의원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대하는 일부 공무원의 소식을 간간이 접하게 된다. 윗물이 깨끗한데 아랫물만 탁하겠는가.

요즘 이완섭 서산시장은 민선6기 취임 3주년이라며 여기저기서 쏟아지는 축하인사와 업적자랑에 여념 없지만, 그 뒤로 내심 칼을 갈고 있는 시민들의 소리는 듣지 못하니, 우화에 나오는 벌거벗은 임금님과 같다.

부디 본분을 되찾고 최소한의 명예라도 지켜 남은 임기 온전하게 잘 마치시길 바란다.

2017 . 7 . 4

서산풀뿌리시민연대

■ [성명]산업폐기물 매립장 건설 “공사중단”이 우선이다.

2017.12.28. 오전 9시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는 서산오토밸리 산업폐기물처리장(이하 산폐장) 문제 해결을 위한 성일종국회의원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서산 est는 2013년 8월 충청남도에 서산오토밸리(폐기물매립시설)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했다. 하지만 ‘폐기물 발생량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이에 2014년 7월 소각 시설을 제외하고 매립 용량을 높여 재차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했고, 충청남도는 시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같은 해 10월 서산est 수용 하에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매립하여야 함’이라는 조건부 승인을 해줬다. 이는 충남도의 요청을 서산est가 수용하면서 승인의 부대조건을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서산 est는 2016년 12월 금강환경청에 ‘단지 내 매립만 하라’는 충남도의 허가 조건을 어기고, ‘서산 오토밸리(산업단지) 및 인근지역’ 으로 확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이에 금강환경청은 2017년 2월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를 했다.

이 사항은 “산폐장반대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환경파괴시설전면백지화를위한 시민사회연대(이하 백지화연대)에서 계속해서 문제제기 했던 내용이다.

또한 충남도의 면담과정에서도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충남도 관계자는 권한이 없다 식으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다.

그러나 충남도가 성일종의원에게 제출한 공문서 (국정 2017-12-26 호) 3번 항목 즉, “부과조건을(산업단지내 발생하는 폐기물만 매립하여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48조1항1호 가목에 따라 시행사에게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라고 명문화되어 있었다.

비대위와 백지화연대에서 분명히 사업승인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니 그 정보를 공개할 것과 공사중단을 요청 하였으나 서산시청, 충남도청, 금강환경청의 공통된 태도는 무시와 무관심이였다. 시민을 기만하고 행정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충남도의 행정 권력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이에 우리는 분노한다.

오늘 성일종의원 기자회견을 지켜보며 서산풀뿌리시민연대는 충청남도와 금강유역환경청 더불어 서산시의 절차상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열흘 동안 산폐장 철회를 외치며 단식으로 투쟁을 이어 온 오스카빌비상대책위원회 한석화위원장이 오늘 상태가 악화되어 서산의료원으로 이송되었다.

서산시 최고 행정수반 이완섭시장은 비대위와 면담을 하고, 언론 보도를 통해 불가피하다는 말 역시 거짓이었고, 제스처였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 시장은 시민을 우롱하여 단식까지 하게 만든 장본인이다.

행정이 시민에게 향해있지 않고, 경제발전이라는 허울 좋은 논리로 기업이익에만 봉사하고 있으니 무고한 시민들은 사지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이제는 지역의 기업 유치가 우선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이 우선되는 행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풀뿌리시민연대는 요구한다.

첫째, 이완섭서산시장은 시민들 앞에 사죄하고, 차후 산폐장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태도와 입장을 밝히라.

둘째, 충남도는 책임있는 주체로서 현재 계속되고 있는 지곡 산폐장의 공사중단 명령부터 시작하라.

셋째, 서산EST는 사익을 위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은폐하고 조작하였다.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시민 앞에 사죄하라.

2017년 12월 28일  
서산풀뿌리시민연대

## 4. 총평

2017년 사업 계획을 바탕으로 지난 한해를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2017년을 열며 서산풀뿌리시민연대는 ‘박근혜 정권 퇴진의 해’, ‘조기 대선으로 촛불이 밝혀낸 정권이 들어서는 해’를 기대했으며, 이는 현실이 되어 작년 한해를 관통했습니다.

또한 변화를 꿈꾸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조직 재정비의 해’를 기조로 단체 내부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을 다짐했고, 그에 따른 다각도의 노력이 진행됐습니다.

주요 사업계획별로 살펴보고 평가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시국, 대선대응, 연대사업의 핵심역할

- 기존 풀뿌리시민연대의 정신인 연대의 정신을 이어나가기 위한 역할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다.

#### 가)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연대활동

#### 나) 세월호 3주기 기억문화제 기획부터 진행까지 참여

#### 다) 미세먼지 대책위원회 연대활동

- ‘환경파괴시설 전면백지화를 요구하는 서산시민사회연대’ 적극 참여 중이며, 매주 열리는 집행위원회 회의 참석, 세이브서산티셔츠판매, 일일주점 연대 등을 통한 지속적 연대 중.

#### 라) 어린이날 행사

- 사드에 대한 소개가 담긴 전시물 전시 및 전쟁반대 4행시 짓기 행사를 진행하여 큰 호응을 얻음. 특히 지역뉴스에 ‘반전메세지를 담은 특별한 행사’라며 소개되기도 했다.

- 참고 [http://m.daejonilbo.com/mnews.asp?pk\\_no=1262290](http://m.daejonilbo.com/mnews.asp?pk_no=1262290)

- 대전일보 모바일 :: [어린이날 특집] 노는걸로 보이나요 공부하는 중입니다

### 2) 풀뿌리시민연대만의 사업

- ‘조직 재정비의 해’를 지정한 만큼 풀뿌리시민연대의 내실을 다지는 조직 재정비를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진행됐습니다. 조직진단사업이라는 사업명으로 4회에 걸친 조직진단 자리가 마련됐으며, 이를 통해 풀뿌리시민연대라는 시민단체 조직에 대한 이해의 초석이 마련됐습니다. 이는 2017년 한해만의 사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조직진단을 통해 시민과 회원이 바라는 풀뿌리시민연대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 의미있는 자리였습니다.

#### 가)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 또한 상반기중 필수 사업이었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이 완료도 괄목할만한 성과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됨으로 인해 향후 기부금 단체 등록을 통한 회원들의 회



비 및 기부금에 대한 세금혜택이 가능해 집니다.

#### 나) 가래떡데이

- 올해 11월 11일 가래떡데이 행사는 서산총괄기와 일정을 같이해서 진행했습니다. 쌀은 양대동소각장대책위원회, 김신환동물병원, 배광식회원의 후원이었으며, 백지화연대와 서산풀뿌리시민연대에서 공임의 50%씩 부담하여 진행됐습니다.

### 3)회원사업

#### 가)소식지 발행

- 올해 소식지는 분기별로 4회 발행을 목표로 하였으나, 내부 여건상 15회, 16회 2회 발행에 그쳤습니다. 지속적 발행으로 회원들에게 소식을 전하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 환경이슈에 중점을 두느라 회원소식 및 기타

#### 나)회원의 날 행사

- 4회에 걸친 지속적인 조직진단 사업의 진행으로 회원 간 만남의 자리가 자주 마련됐으며, 연말, ‘회원밥한끼 먹는 날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훈훈한 마무리가 가능했습니다.

#### 다) 일상 소모임의 활성화

- 올해는 이운정 회원을 중심으로 하는 소모임인 ‘풀뿌리소잉클래스’가 시작됐으며, 현재까지 활동 중입니다.
- 구자은 회원의 회원대상 풍물교실에 대한 안내도 진행됐으나, 회원참여 부족으로 아쉽게도 다음을 기약해야 했습니다.

### 4) 기타

- 풀뿌리시민연대 홈페이지(<http://seosanpool.org>)가 오픈했습니다.
- 상큼한 디자인으로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회원가입서를 제작했습니다.
- 천수만 철새먹이나누기는 AI로 인한 경계로 예년만큼 진행되지는 못했습니다.

2017년 한 해는 어린이날행사, 가래떡데이, 소식지, 회원행사 등 지속적으로 진행되던 사업 외에 조직진단을 위한 1년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 됐으며, 서산지역 환경 이슈에 눈을 돌려 집중했던 한 해입니다.

조직진단사업은 1년 사업만으로는 성과를 보기 어려운 만큼 앞으로 2년차, 3년차를 기획하여 진행하면 우리 조직의 중심을 잡아가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계속 투쟁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연대인 ‘백지화연대’ 연대활동도 끈을 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공단 밀집지역으로 환경오염이 필연적으로 대두되는 지금의 서산시에 반드시 필요한 환경관련조례제정을 통해 서산시민과 함께 발의하는 조례제정운동에도 적극 참여해야겠습니다.



## 5. 감사 보고

### 1) 회계감사

업무집행 내용과 결산서의 각항이 정확한 쓰임새를 확인하였습니다.  
적은 회비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의 참여가 돋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발로 뛰며 참여한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작년은 단체등록을 한 해이기는 하지만 회원의 증가 문제는 끊임없는  
우리의 요구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풀뿌리만의 독자적인 다시 말하면 회원들의 위한 활동이 부  
족함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회원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동기 부여가 활발하여 이것이 회원의  
증가로 연결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올 해는 풀뿌리가 좀 더 튼튼한 뿌리를 내려 이 사회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  
는 해이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감사 이해숙

### 2) 사업감사

2017년 상반기에는 무능력하고 부도덕한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 정  
부를 수립하는 성과를 거둔 뜻 깊은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서  
산풀뿌리시민연대도 객관적 역량에 비해 지대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은 서산 지역의 현안 문제인 환경 오염 문제에 지역 연대를 통  
해 적극적으로 활동을 전개한 한해입니다.

이러한 연대 활동과 함께 어린이날 행사, 가래떡데이 행사, 회원참여 행사,  
소식지 발행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조직진단 사업 전개, 비영리 민간  
단체 등록, 홈페이지 오픈 등 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또한 가열차게 진행하  
였습니다.

계획하였으나 실행되지 못한 사업도 일부 있지만, 우리의 조직 역량에 비추어  
본다면 지난 1년 동안 숨 돌릴 틈 없이 사업을 집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운영진의 희생적인 노력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운영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사업감사 길준용

# 심/의/안/건

---

# 심의안건 1. 임원 선출의 건

: 서산풀뿌리시민연대 대표, 운영위원, 사업감사, 회계감사를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진행순서

- 대표 결의 또는 추천 접수
- 대표 인준
- 운영위원 결의 또는 추천 접수
- 운영위원 인준
- 사업감사, 회계감사 결의 또는 추천 접수
- 감사 인준

### <관련규정>

제11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월 이내에 개최하며, 다음의 의안을 다룬다.

1. 예산, 결산의 승인
2. 대표, 운영위원 및 사업감사, 회계감사의 선출
3. 정관의 개정 및 제정
4. 기타 회원 및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

제13조(운영위원회의 지위와 구성)

- ①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상설 의결, 집행기구이다.
-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하되, 20인 이내로 한다.
  1. 대표
  2. 총회에서 선출된 운영위원

제14조(운영위원회의 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 ① 사업 전반에 관한 집행 및 조정과 감독
- ② 총회에서 위임된 안건의 심의와 의결 및 집행
- ③ 예산 및 결산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④ 정회원 가입 승인 및 상벌에 관한 사항
- ⑤ 각 활동기구 및 부설기관의 설치 및 폐지
- ⑥ 기타 규약이 부여하는 권한

---

# 심의안건 2. 2018년 사업계획(안) 승인의 건

: 2018년 사업계획(안)을 제출하오니 심의·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

## 1. 2018년 전망과 풀뿌리시민연대의 사업 기초

올해는 ‘조직 재정비와 지역에서 풀뿌리 뿌리내리기’라는 기초로 조직 결속을 다지는 토대를 마련하고, 회원 개개인의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춘 조직역량강화를 통해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 2. 주요 사업계획

### 1) 시국, 지방선거 대응, 연대 사업 핵심 역할

#### 가) 개헌 및 지방선거 관련

- 개헌 논의에 관심을 가진다.
- 촛불혁명 이후 첫 지방선거에, 서산 민주시민들과 연대에 적극적으로 함께한다.

#### 나) 평화\*통일 사업

- 한반도 평화와 남북 화해협력에 연대, 함께한다. 각 계기들(평창 올림픽, 패럴림픽, 6.15, 8.15행사 등)에 맞춰 환영, 응원 및 평화 캠페인 등의 사업을 전개한다.

#### 다) 세월호 4주기

- 시기 : 4월
- 장소 : 행사 성격에 따라 추후 결정
- 방식 : 서산지역 참가를 원하는 시민사회단체 및 시민개인들의 참여로 진행

#### 라) 지역의 환경문제 연대 활동

- 백지화연대

#### 마) 어린이날 행사

- 시기 : 5월
- 장소 : 추후 결정
- 방식 : 참가하는 지역단체들과 함께 논의하여 진행

### 2) 풀뿌리시민연대만의 사업

- 조직 재정비의 해로 풀뿌리시민연대의 내실을 다지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서산 지방정부 감시 활동에 끈을 놓지 않고, 사안에 적절하게 논평 및 성명서 등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가) 기부금단체 등록

- 시기 : 상반기 중 등록

나) 가래떡 데이

- 시기 : 11월
- 장소 : 추후결정
- 방식 : 농민단체로부터 쌀을 지원받아 가래떡데이를 홍보하며 가래떡을 나눠줌.

다) 운영위원회 교육

- 매 운영위원회 회의에 앞서 20분씩 운영위원 교육 및 토론을 진행한다.

### 3) 회원 사업

가) 신입회원 교육

- 우리 회에 대한 신입회원의 이해도를 높이고, 신입회원과 기존 회원들의 만남의 장을 통해, 소속감과 친밀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 회원들의 어색함을 줄일 수 있는 형태로 진행( 예 : 신입회원의 거주지인근 기존회원들과의 식사모임-우리 회 소개 및 기존회원과의 친밀감을 가질 수 있는 만남)
- 년 4회로 한다.
- 가급적 준비모임을 구성하여 ‘우리 회 소개’ 내용 마련하도록 한다.

나) 소식지 발행

- 발행주기 : 분기별
- 발행부수 : 1000부
- 발행면수 4P

다) 다양한 회원의날 행사

- 감자캐기 / 고구마캐기 등 영농행사 및 회원 밥한끼 먹는 행사
- 시기 : 6월 / 10월 / 12월
- 장소 : 추후 결정
- 방식 : 회원들과 회원지인들의 자유로운 영농활동으로 진행.

라) 일상 소모임의 활성화 및 적극적인 지원

- 풀뿌리 시민연대라는 이름에 걸맞게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소모임 활동을 통해 민주주의를 자연스레 익히고 민주시민으로서 역할 할 수 있도록 한다.

보통 민주주의는 대의제와 다수결의 원칙으로 얘기되지만 이것의 한계는 늘 지적되어 왔고 직접민주주의와 건전한 토론을 통한 합의와 소수의견의 존중이 보다 높은 가치를 가짐은 명백하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방향을 지향해야 하며 소모임 활동에서부터 이러한 가치가 충분히 녹아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보다 중요한 민주주의의 요체는 형식적 의사결정 구조가 아니라 억압에 대한 반대와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이해와 의견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작년에 진행된 쏘잉클래스 소모임 외에 이 취지에 걸맞는 다양한 소모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보자.

예) 캣맘 모임, 영화 소모임, 문학 소모임, 학습 소모임, 음악 소모임, 여행 소모임 등등. 이 외에도 역사유적지나 민주화 투쟁의 성지라고 얘기되는 곳들을 방문하고 다양한 토론을 해보는 모임이나, 인권활동가나 노동운동가를 초빙하거나 방문하여 다양한 얘기를 나누고 그 결과를 소식지에 실는다든지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모임 등도 생각할 수 있겠다.

- 풀뿌리 소잉클래스 : 지난해 9월 첫모임-"면생리대만들기"를 시작으로 월1회 정기적으로 모임진행. 세간의 관심사인 생리대유해물질을 알리고 면생리대 사용권장 / 앞으로 다양한 커리큘럼의 만들기 진행예정

#### 4) 기타 강연회나 공동체상영

- 시기적으로 적절한 강연회나 공동체 상영 가능 영화가 있으면, 주체적으로 준비하여 진행한다.



# 심의안건 3. 2018년 예산(안) 승인의 건

: 2018년 예산(안)을 제출하오니 심의·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8년도 예산서

단위: 원

적요	내용	금액	비고	구성비	증감	
수입	전년도 이월	2,723,829		20.0%	211.8%	
	회비	10,300,000	회원 150명 및 기존회원정비	75.6%	4.6%	
	기타	600,000	후원금 및 기타판매수입	4.4%	-66.9%	
합계		13,623,829			8.7%	
지출	운영비	통신요금	169,400		1.4%	0.0%
		전기료	187,240		1.6%	0.0%
		사무실임대료	2,255,000	205,000 * 11월	18.9%	-15.4%
		웹하드사용료	164,942		1.4%	0.0%
		수수료	800,000	CMS 출금수수료 등	6.7%	3.7%
		업무추진비	1,200,000	사무담당 100,000 * 12월	10.1%	100.0%
		홈페이지관리비	200,000	한글도메인 구입비 등	1.7%	100.0%
		기타	100,000		0.8%	-88.6%
	소계		5,076,582		42.6%	10.2%
	연대사업비	분담금	400,000	4개사업 * 100,000	3.4%	-80.9%
		홍보광고료	160,000	4개사업 * 40,000	1.3%	-34.7%
	소계		560,000		4.7%	-76.0%
	회의비	회의	300,000	25,000 * 12월	2.5%	-65.7%
		총회	1,000,000	음식, 자료집, 현수막	8.4%	14.5%
	소계		1,300,000		10.9%	48.8%
시민사업비	가래떡의 날	160,000	공임비용	1.3%	-0.3%	

	평화통일행사	500,000		4.2%	100.0%
	어린이날행사	400,000	프로그램 진행비	3.4%	21.4%
	홍보광고료	160,000	4회 * 40,000	1.3%	100.0%
	소 계	1,220,000		10.2%	717.8%
조직사업비	신입회원교육	400,000	4회 *100,000	3.4%	100.0%
	소식지발행	1,000,000	4회 * 250,000	8.4%	74.8%
	회원의날행사	150,000	3회 * 50,000	1.3%	100.0%
	소모임	1,800,000	3개모임 * 50,000 * 12월	15.1%	800.0%
	홍보광고료	400,000	10개 * 40,000	3.4%	100.0%
	소 계	3,750,000		31.5%	241.4%
합 계		11,906,582		100.0%	21.4%
이월금		1,717,247			-37.0%

---

# 기타안건

: 기타안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서산풀뿌리시민연대 정관

---

제정 2011년 6월 28일

1차 개정 2013년 8월 30일

2차 개정 2015년 1월 29일

3차 개정 2016년 1월 22일

4차 개정 2017년 1월 20일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우리 단체는 서산풀뿌리시민연대(약칭‘풀뿌리연대’)라 한다.

제2조(사무소) 우리 단체 사무소는 서산시에 둔다.

## 제2장 목적과 사업

제3조(목적) 우리 단체는 지역사회의 주인인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에 기초하여 삶의 문제로부터 출발하는 풀뿌리운동의 활성화와 이를 통한 참된 주민자치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제3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시민 참여에 의한 자치의 실현
2. 지역의제의 발굴·대안의 연구개발과 정책 제안
3. 삶의 문제를 정치적 의제로 만들어가는 사업
4. 자발적 시민 참여를 위한 사업
5. 기타 풀뿌리연대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 제3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우리 단체의 목적과 정관에 동의하고 약정회비를 납부하면 회원이 될 수 있다.

① 회원은 정관에 정한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며, 우리 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참여하며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대표, 운영위원 및 사업감사, 회계감사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회비 납부의 의무
3. 우리 단체의 정관에 따른 의무
4. 우리 단체의 사업과 교육 및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

② 삭제

③ 삭제

④ 연속하여 6개월 이상 회비를 미납하였을 경우,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단, 이 경우 회비 미납 회원의 의사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회원의 가입)

① 우리 단체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입회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②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 2/3 이상이 가입에 반대하면 반려한다.

제7조(회비) 우리 단체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회비 조항을 둔다. 회비의 액수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① 월회비 : 회원은 약정한 금액의 월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금액은 내규로 정한다.

② 특별회비 : 특별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 후원회비 : 연간 후원의 한도를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한도 이상의 후원회비는 금한다.

제8조(회원의 상벌) 우리 단체는 모범적인 활동을 벌인 회원을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표창할 수 있다. 또한 우리 단체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거나, 정관과 주요결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경고, 자격정지와 총회에서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제4장 총회

제9조(지위와 구성)

① 우리 단체 최고의결기구로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회원이 위임하는 경우 위임하는 회원은 자필로 작성한 위임장을 제출하거나, 총회 준비 단위에 휴대폰 문자 또는 SNS, 이메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0조(공고) 총회공고는 총회 예정일 10일 이전에 개최사실과 안건을 서면과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문자나 SNS로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사분기 이내에 개최하며, 다음의 의안을 다룬다.

1. 예산, 결산의 승인
2. 대표, 운영위원 및 사업감사, 회계감사의 선출
3. 정관의 개정 및 제정
4. 기타 회원 및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

제12조(임시총회) 대표의 소집요구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이나 회원 1/5이상의 요구로 소집되며, 다음의 안건을 다룬다.

1. 추가 경정 예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기타 운영위원회의 의결 또는 소집 회원들이 제출한 안건

## 제5장 대표 및 운영위원회

제13조(운영위원회의 지위와 구성)

- ①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상설 의결, 집행기구이다.
-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하되, 20인 이내로 한다.
  1. 대표
  2. 총회에서 선출된 운영위원

제14조(운영위원회의 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 ① 사업 전반에 관한 집행 및 조정과 감독
- ② 총회에서 위임된 안건의 심의와 의결 및 집행
- ③ 예산 및 결산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④ 회원 가입 승인 및 상벌에 관한 사항
- ⑤ 각 활동기구의 설치 및 폐지
- ⑥ 기타 정관이 부여하는 권한

제15조(대표의 지위와 권한)

- ① 우리 단체를 대표하며, 업무를 통할한다.
- ② 대표는 3인 이내의 공동대표로 할 수 있다.
- ③ 대표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소집과 의장
  2. 각 활동기구 및 부설기관장의 임명
  3. 기타 정관이 부여하는 권한

제16조(운영 및 소집) 운영위원회는 정기 운영위원회와 임시 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 ① 정기 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개최하며, 운영에 관한 방법은 운영위원들의 협의를 통해 대표가 정한다.
- ② 임시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을 때 대표가 소집한다.
  1. 대표가 요구할 때
  2. 운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제6장 집행기구

### 제17조(지위와 구성)

- ①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며, 정관에 명시된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는 집행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집행기구의 명칭, 구성, 운영 등에 대한 세부 규칙 및 인적구성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고 인준한다.

### 제18조(권한과 역할)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역할을 갖는다.

- ①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업 전반에 관한 집행 및 조정
- ② 각 활동기구의 활동 지원
- ③ 예산 및 회원의 관리
- ④ 기타 정관이 부여하는 권한

### 제 19조(실비보상)

- ① 집행부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일정액의 수당과 실비(식비, 출장비 등)를 보상할 수 있다.
- ② 상근 또는 반상근 인력을 채용할 수 있으며 채용, 급여, 근무조건 등에 대한 세부규칙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7장 고문, 자문위원, 감사

제20조(고문) 대표, 운영위원, 집행위원으로 활동한 전직 회원에 대하여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21조(자문위원) 우리 단체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한 지도와 자문을 받기 위하여 각계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제22조(감사) 우리 단체의 사업과 재정을 감사하기 위해 사업감사와 회계감사를 각각 1인씩 두며, 정기총회에 감사의견을 보고 하여야 한다.

## 제8장 회의

제23조(의결) 모든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① 총회의 재적인원은 의결권을 갖는 회원으로 한다.
- ② 총회를 제외한 모든 회의의 재적인원은 해당 구성원으로 한다.
- ③ 회의에 참석을 하지 못하는 구성원은 위임의 의사를 자유롭게 각 회의 의장에게 표현할 수 있으며, 위임 의사를 표현한 구성원은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



임한 구성원을 제외하고 참석한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의결권의 제한) 월회비를 3개월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에는 의결권을 제한 한다.

## 제9장 선출 및 임기

### 제25조(선출)

① 대표와 운영위원 및 사업감사, 회계감사의 선출방식은 회원 과반수이상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회원 1인 1표에 의한 직접투표를 통해 다수 득표자순으로 선출한다.

② 다음 각 호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선임 및 위촉한다.

1. 고문
2. 자문위원
3. 활동기구 및 부설기관의 장

### 제26조(임기)

① 대표와 운영위원 및 사업감사, 회계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총회 연기 등의 사유로 차기 임원이 선출되지 못할 시, 총회가 열릴 때까지 그 직을 수행한다.

② 대표 전원이 궐위 시 운영위원 중 1인을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하여 권한을 대행 한다. 단 그 임기는 궐위한 대표의 잔여 임기로 한다.

## 제10장 재정

### 제27조(회계연도)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28조(예산과 결산)

① 운영위원회는 예산안을 작성하여 당해 연도 총회에서 추인받아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결산안을 회계감사로부터 감사를 받아 총회에 제출해야 한다.

### 제29조(수입)

수입은 회비, 기부금,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 제 30조(공개)

① (단체 예결산공개) 매년 3월31일까지 홈페이지에 예산 및 결산을 공개한다.

② (기부금 내역공개)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 제11장 정당활동 등의 제한

### 제31조(정당활동 등의 제한)

대표와 운영위원은 공직에 취임할 경우 또는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사임하여야 한다.

## 제12장 부칙

### 제32조(준용 규정)

- ①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 원칙과 내규에 따른다.
- ② 내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해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3조 잔여 재산의 귀속 등

- ① 풀뿌리연대를 해산할 때 잔여 재산은 국가 또는 풀뿌리연대의 본래 취지에 가장 가까운 목적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에 기증할 수 있다.
- ② 기타의 사항은 법인의 해산과 관련된 민법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효력의 개시) 본 정관은 총회 의결 이후부터 효력을 갖는다.

플뿌리시민연대 회원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늘 힘이 됩니다!!

강윤희 강지호 강택환 강현석 곽순복 구자은 국준호 권경숙 권태석 길준용 김경호  
김금순 김금철 김기영 김기찬 김동돈 김동선 김명숙 김미숙 김상호 김선화 김순제  
김승호 김신환 김영아 김용기 김유란 김익권 김정이 김종현 김진희 김한근 김한석  
김한중 김회준 김후용 김희수 나진생 남소라 노상근 류종철 류현선 문건동 박상덕  
박선의 박숙자 박영록 박영미 박은숙 박재영 박진표 박찬주 박상림 배광식 백승자  
서동춘 서은희 손윤희 손정자 신성원 신현웅 심전호 심주호 안미정 안숙영 안인철  
안창노 양봉환 엄익삼 엄화분 엄현미 오수익 오정숙 유금희 유병국 유용국 유재연  
윤만수 이덕선 이동환 이명옥 이백윤 이승화 이윤정 이인의 이재구 이재영 이종훈  
이준환 이종태 이해원 이해숙 이희출 임성빈 임화수 장호성 전옥경 정세환 조기행  
조성훈 조수정 조영미 조영수 조정상 조철상 최진일 최천묵 하용희 한광희 함정훈  
홍순각 황선일

서산 플뿌리시민연대 홈페이지 오픈했습니다.

회원들이 흔적 기대합니다^^

<http://seosanpool.org>